5강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6장)

오늘의 포인트

- 오병이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
- 그리스도는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심을 이해
- 이것(오병이어 표적)이 참된 신앙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해

오병이어 표적과 그 의미

제한된 이해: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셔서 어린 아이 도시락 하나 분량의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유월절이 가깝다'—중요한 복선: 표적 이해의 단서

1.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출 12)
2. '생명의 떡'(48)—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50~51).
3.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심(고전 11:23~24)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유월절 어린양이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주심(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심.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지, 구원에 있지 않았다(26).

복음은 말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죄인에게 찾아왔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찾아왔다.

오병이어 표적은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찢어 죽은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을 살리시는 표적이다. 오병이어처럼 당신 자신을 깨뜨려 죄인들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영혼과 육신, 그리고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는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오병이어로부터의 창조?

오병이어 표적은 **주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 관점에서라면, 모세가 날마다 40년 동안 200만명을 하늘의 만나로 먹인 표적만 못하다.

오병이어 표적은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오병이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만큼 사소한 것**(200데나리온-한 사람의 7~8개월 수입, 많이 먹이려면 천이나 2천 데나리온이 필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가 바로 오병이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1. 겨자씨, 가루 서말 속에 숨겨진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마 13).
2. 보잘 것 없으신 예수님(41~42), 보잘 것 없는 교회

[오병이어에 대한 오해들]

초점은 아이의 헌신이 아니다.

방법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구원은 불가능하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다. 믿음을 구하는 것 밖에 없다.

오병이어 때문이 아니다.

오병이어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것을 가리키는 용도—오병이어는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의 수준(9).

무한대 + 1만원, 무한대 + 1억 = 무한대

인간이 가져오는 헌신의 수준의 알량함.

헌금의 문제: 회비나 운영자금이 아님—우리는 공급자가 될 수 없음.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되심(시 50:10,12).

[하나님의 충분성]

하나님의 충분성(the Sufficiency of God): 하나님을 도울 자는 없다!

(롬 11:35~36)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표적을 체험해도 믿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사람들—거짓 믿음

[밥그릇을 해결해주는 예수]

1.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이 신앙의 증거는 아닐 수 있다(15)
2.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열심이 참된 신앙의 증거가 아닐 수 있다(26).
3. 표적을 추구하고 표적에 이끌리는 것은 참된 신앙의 증거가 아니다(30).
4. 물질주의적 동기는 참된 신앙의 표지가 아니다(34).
5.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참된 신앙의 증거가 아니다(66).

주님의 설교

1.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27).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진 직업을 헛되다는 의미가 아니다.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염려하고 힘쓰라!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지 말라!

2. 믿는 것이 일이다(29).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28)

=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3.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37,44).

(6:37a)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6:44a)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4. 믿음의 대상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시다(29,35,40,48).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35,48,51)

광야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6:32~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썩는 양식은 일시적 만족을 주고 그것을 먹은 자들은 다 죽었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사라지지 않는 영적 만족과 영생을 주신다(49~50).

(6:49~50)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를 먹어라 = 나를 믿어라

(6:53~57)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찬 제정의 말씀이 아니다.]

1. 먹고 마심이 직접적으로 영생을 준다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
2.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지만 성찬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1. 영생의 약속과 확신(47,51,53~54)
2. 그리스도와의 연합(56)
3.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음(57)

[다시, ‘유월절’(4)]

유월절 양을 먹는 것(출 12) —>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살과 피 =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먹으라 = 믿으라(47절과 51,54절 비교)

믿음은 먹고 마시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다.

주님이 주실 그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대해서 배고픔을 가지고 나오라!

주님의 표적과 말씀의 초점 = 육이 아니라 영(63).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최악의 결정: 떡만 먹고 떠나는 사람들

1. “말씀이 어렵다”?(60)
(6: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것(65).

‘어렵다’ = ‘귀에 거슬린다.’
(6:63)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다.

2. 최악의 결정(66)
(6: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약 2만명(광야) —> 수백? 수십명(가버나움 회당, 59) —> 12명?
떡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떠난다(26).
참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다.

3.그리스도를 따르는 결정의 근거는 생명의 말씀이다(68~69).
(6:68~69)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삽입된 표적: 바다 위를 걸으시다(16~21)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7개인가, 8개인가?
1.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2장)
2.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4장)
3. 38년된 병자를 고치심(5장)
4.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목이심(6장)
5.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9장)
6.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11장)
7.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심(21장) / 물 위를 걸으심(6장)

꼭 7번이라는 언급은 없다(요 20:30~31).
(20: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표적의 의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 표적 해석의 원리]
1. 오병이어 표적과의 연관성: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
2. 모든 표적은 육적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영적 의미를 전달한다.

제자들이 친숙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고, 제자들 중 여러 사람은 바다에 익숙한 뱃사람들이었다.

[표적의 의미]

1.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요 15:5).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버겁게 살아갈 뿐이다.

신앙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물 위를 걷는게 아니다.

배, 실력,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다.

2. 신앙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

주님을 먹고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기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풍파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신앙은 거친 풍파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결과: 주님이 계시면 풍파 속에서도 목적지에 도달한다(시 107:23~30).

오늘의 적용

-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인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배부르기 위함인가?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가?
-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 수고하라.
- 믿음을 구하라.

나침반 바이블 BIBLE